

더 나은 삶에 관한 꿈꾸기

에른스트 블로흐의 새로운 철학과 심리학

박설호

한신대 교수·독문학

우리는 꿈을 꾸다. 비록 남들이 아무리 하찮게 여기더라도, 아무리 허황되고 사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꿈꾸며, 그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한다. 고해의 현실속에서 부딪치는 것은 수많은 불행들이다. 그럼에도 순간적으로 절망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어떤 바람이 사라지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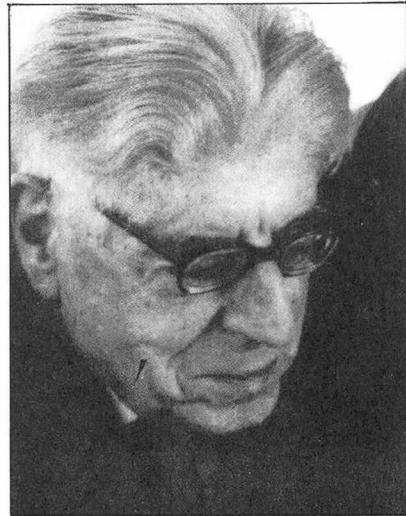
이 바람은 우리의 삶을 지탱시켜주는, 더 나은 삶에 관한 꿈이다. 그러기에 희망이란 인간 삶에 가장 중요한 심리적 에너지를 제공하는 기대 정서이다. 에른스트 블로흐는 대저작 《희망의 원리》를 통하여 인간의 핵심적 정서로서의 희망을 추적하며, 새로운 철학 및 심리학을 밝히고 있다.

생존 가능성을 보장하는 미래지향의 꿈

블로흐는 제1권에서 인간의 여러가지 충동이 어떠한 유형으로 연구돼왔는가? 하는 문제를 규명하고 있다. 즉 자유주의자 프로이트의 성 충동 및 자아충동, 알프레트 아들러의 권력 충동 그리고 반동주의적 파시스트 칼 구스타프 융의 도취 충동이 바로 그것들이다. 블로흐는 이러한 제반 심리학적 연구를 비판적으로 설명하며 다음과 같은 두가지 사항으로써 중간 평가를 내리고 있다.

첫째로 지금까지의 심리학은 그 방향에 있어서 한결같이 과거로 향하고 있다. 프로이트는 환자의 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유년기로 거슬러 올라가고, 칼 융은 찬란한 이상적 삶을 고대의 원초적 삶에서 찾으려고 한다. 이들의 이론은 긍정적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들의 시각은—비유적으로 말하자면—지옥의 아헤론 강을 탐색하고 있다. 둘째로 지금까지의 심리학은 인간의 가장 오래된 기본적인 충동인 굶주림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분석학은 끼니 걱정이 없는 중산층 이상의 관심사를 반영한 데 불과하다.

블로흐는 이 두가지 사항을 상호 관련성 속에서 파악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심리학은 인간의 심리 상태를 오직 성과 성격 등의 영역에서 추적하였을 뿐, 식욕을 해결하는 문제와 관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의 삶을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지탱시켜 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경제학적 사회학적 문제의 해결이다. 굶주리는 인간은 “더이상 굶지 않으려면 무엇을 인식해야 하며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를 숙고한다.



에른스트 블로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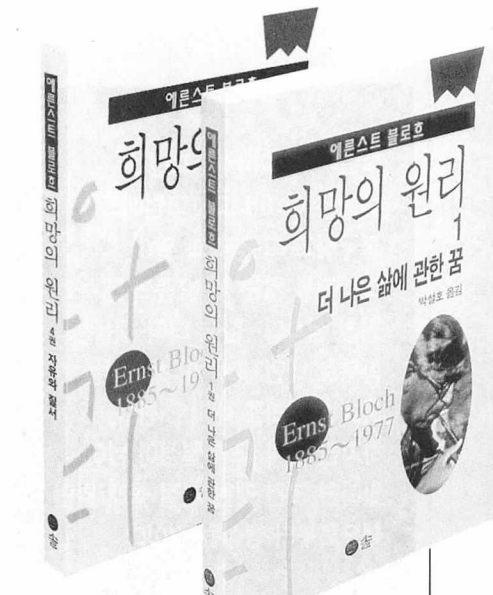
블로흐는 굶주리는 자의 정서 상태에서 현실 개혁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찾아내고 있다. 이는 미래지향적인 꿈으로 전개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새로운 철학 및 심리학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최소한 생존의 가능성을 보장해 주는 어떤 미래에 대한 애착, 바로 그것이다. 더욱이 블로흐에 의하면 과거를 동경하는 제반 퇴행적 정신 풍토 속에는 파시즘의 본질과 직결되는 반동적 세계관이 내재하고 있다고 한다.

낮꿈의 완전성에 대한 추구

블로흐는 인간의 제반 정서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대 정서로서의 희망이라고 이해한다. 이러한 희망은 특히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떠오르는 것이다. 블로흐는 이러한 ‘아직 인식되지 않은 무엇’을 낮꿈 속에서 발견하고 있다. 정신분석학이 밤에 꾸는 꿈을 추적하는 작업이라면, 새로운 혁명적 심리학과 철학은 낮에 꾸는 꿈에서 중요한 기대 정서를 도출해 낼 수 있다.

블로흐에 의하면 낮꿈에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특성이 담겨 있다고 한다. 첫째, 낮꿈은 밤꿈의 전단계가 아니다. 차단된 밤꿈과는 달리 개방된 낮꿈 속에는 지칠 줄 모르는 인간의 충동력이 내재해 있다고 한다. 둘째, 낮꿈 속에는 블로흐에 의하면 자아의 의지가 보존되어 있다고 한다. 밤꿈 속에는 모든 것을 검열하는 자아가 배제되어 있는 반면에, 낮꿈속에는 자의식에 충만한 자아가 꿈의 방향을 조종하고 있다.

셋째, 낮꿈 속에는 세상을 개혁하려는 의지



우리는 수많은 불행들과 부딪치는 현실 속에서도 더 나은 삶에 관한 꿈을 꾸며 산다. 에른스트 블로흐는 대저작 《희망의 원리》를 통해 인간의 핵심적 정서로서의 희망을 추적하고 있다. 이러한 희망 즉 ‘아직 인식되지 않은 무엇’을 낮꿈 속에서 발견한다. 새로운 혁명적 심리학과 철학은 이 낮꿈에서 중요한 기대정서를 도출하고 있다.

가 담겨 있다고 한다. 밤꿈이 마치 어떤 중독, 정신분열증의 특성과 관련된다면 낮꿈은 대마초로 인한 환각, 편집광증의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넷째, 낮꿈은 마지막 끝까지 어떤 완전성 추구의 경향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이를테면 낮꿈은 완전성에 대한 판타지의 실현이요, 나아가서는 예술의 전단계로서 등장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낮꿈은 ‘아직 인식되지 않은 무엇’이 탄생하는 영역이나 다름이 없다. 블로흐는 더 나은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신선한 에너지로서 세가지 사항을 예로 들고 있다. 즉 청춘, 전환기 그리고 창조성이 바로 그것들이다. 젊은이는 기존의 현실을 부정하며 자신의 미래를 새롭게 구상한다. 전환의 시대는 블로흐에 의하면 세계의 변화를 잉태시킨다. 또한 블로흐는 예술 창조의 과정속에서 ‘아직 인식되지 않은 무엇’이 발현한다고 지적한다. 예술 작품은 잠복, 영감 그리고 표출이라는 세 단계를 거친다. 문제는 ‘아직 인식되지 않은 무엇’이 쉽사리 인간의 뇌리에 인식되지 않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의해서 거부당하는 데에 있다. ‘아직 인식되지 않은 무엇’은 감히 소화해낼 수 없는 혁명과 천재성이라는 음식이나 마찬가지로이다.

정태적 세계관의 비판

그렇다면 왜 ‘아직 인식되지 않은 무엇’은 우리에게 저항감으로서 다가오고 있는 것일까? 블로흐는 이에 대한 해답으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 사항을 들고 있다. 그 하나는 새로운 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의식의 보수적

특성에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동서 고금을 지배해온 정태적 세계관에 기인한다. 특히 정태적 세계관은 기독교를 고수하려는 비호 세력에 의해서 공고히 뿌리를 내렸다고 한다.

정태적 세계관에 의하면 미래란 ‘하나의 이루어진 것’으로 종결되어 있으며, 고대 철학에서 지금까지 당연시되어 왔다. 플라톤의 재기억에 관한 이론에 의하면 “세계는 그 자체 이미 완성되어 있으며 폐쇄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인간은 반복 내지는 향존의 세계를 그냥 재기억하면 족하다고 한다. 블로흐는 지금까지의 철학이 완결된 존재로서, 정착된 형식으로서의 이념 내지는 실체만을 고수해 왔다고 주장한다. 무언가를 요청해 내리는 칸트의 경우에도, 변증법을 내세우는 헤겔의 경우에도 결과로서의 포만감이 강조되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보편적 정서로서의 희망은 철학적으로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철저히 연구되지 않았던 것이다.

희망의 원리 제1권은 총 8권중의 일부에 불과하다. 역자는 지금까지 2권을 번역하였고, 나머지 6권을 2002년까지 완역할 계획을 품고 있다.

《희망의 원리》(박설호 옮김)
술/A5신/각 310면/각 7000원